

교사·학생 함께 성장하는 '배움 중심 수업'

전남도교육청 '2020 전남수업혁신 종합계획' 마련 학생들 학습 주체로 참여 삶에서 필요한 역량 기를 수 있게

전남지역 각 학교 수업이 교사·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배움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배움중심 수업을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최근 '2020 전남수업혁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계획에 따르면 배움중심 수업은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는' 수직적 형태가 아닌, 학생들이 학습의 주체로 참여해 삶에서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말한다.

도교육청은 배움중심 수업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자기주도 학습력 강화 ▲배움이 즐거운 교육과정 운영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교육활동 중

심 지원체제 구축 등 4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보장하고, 초등 1·2학년 담임교사의 문해·수해력 의무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시·군·구 단위 1학년 학급당 학생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토의·토론 교실문화를 만들기로 했다. 교육과정 속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통해 독사·토론·글쓰기 능력도 길러준다는 계획이다.

'배움이 즐거운 교육과정 운영'은 이번 수업혁신 방안의 핵심 내용으로,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특색을 반영한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편성하게 된다.

이를 위해 ▲배움중심 수업 설계하기

▲배움 권리 보장하기 ▲배움을 확인하고 지원하기 등 교사의 3가지 약속을 제시했고, 학생들도 ▲스스로 학습목표 설정해 배움활동에 참여하기 ▲친구 의견 존중해 협력하며 배우기 ▲알게 된 내용을 자기 언어로 정리하기 등 3가지 약속을 지킬 것을 제안했다.

배움 중심수업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의 협력적 배움으로 더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현재 전남 학교 안팎에 1811개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활동중이다. 전남 전체 교원의 70%에 달하는 1만 3000여 명의 교원이 참여해 협력적 수업나눔 시스템을 구현, 배움중심 수업을 실현하고 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중심의 지원체제로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수업혁신을 앞당긴다는 전략도 내놓았다.

올해 10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시범 구축한 학교지원센터를 2020년 22개 시·군으로 확대해 교사의 행정업무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각종 연구 운영과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보급, 수업나눔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서도 배움중심 수업의 조기 안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도교육청은 올 연말까지 배움중심 수업을 최대한 많은 학교에 확산하고, 2020년 정착기를 거쳐 2021년에는 전남형미래학교와 연계해 학교 현장에 일반화한다는 계획이다.

장석용 교육감은 "배움중심 수업혁신을 통해 학생들에게 삶을 주도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은 물론, 교사의 수업성찰과 수업나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며 "호기심과 질문으로 가득 찬 교실, 협력하고 스스로 배워가는 교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금파공고 장강성 학생·심기방 교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 교육부장관상

광주 금파공업고등학교 도제교육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가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금파공고 전기전자과 3학년 장강성 군과 심기방 교사는 최근 도제교육 참여·운영과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장관상을 받았다.

장강성 군은 지난 5월 '2019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워크숍'에서 학교와 기업에서 배우는 도제교육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 학생 우수 수기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또 심기방 교사는 도제학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도제학교는 2015년 3월부터 특성화고 9개교에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빠르게 확대되어 현

재는 67개 사업단, 194개 과정, 162개 교가 참여하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 도제식 교육제도를 국내에 도입한 것으로, 기업이 학생근로자를 직접 채용해 생산현장에서 일하며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학습병행제'다. 학생은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는 현장 중심 직업교육 훈련인 셈이다.

장강성 군은 "도제교육에 참여하면서 선생님과 기업체 현장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었다"며 "이런 가르침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배우 전문기술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대 '창의융복합 인재' 양성

스마트 강의실 구축·글로벌 교육시스템 개발 등 박차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교육혁신에 나섰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광주대는 최근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율혁신학과 특성화지원 프로그램'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뷰티미용학과와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패션주얼리학과, 항공서비스학과가 참여했으며 학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성과와 과제,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광주대 '자율혁신학과 특성화지원 프로그램'은 학부(과) 10개를 선도형(국제물류무역학과, 뷰티미용학과, 사이버보안경찰학과,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과 일반형(사회복지학과, 식품영양학과, 아동학과, 전기전자공학부, 패션주얼리학과, 항공서비스학과)으로 나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맞춤형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광주대는 최고의 교육환경 개선과 글로벌 교육과정 개발을 목표로 총 3억8000만 원의 예산을 해당 학부(과)에 지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일동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최근 '도담도담 전통 탐험대' 교육을 통해 전통예절과 인사법을 배운 뒤, 인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학교 정문에서 인사캠페인을 펼쳤다. <일동초 제공>

전남대 '어문논총' KCI등재후보학술지 선정

한국연구재단, 학술권위 인정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회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어문논총(사진)'이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에 선정됐다.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하는 학술지 등재제도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학술지들을 평가해 그 학술적 권위를 인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어문논총'은 1953년 전남대학교 문리과대학 구성원들에 의해 발족된 국문학회연구회가 1959년 '국문학보' 1호를 발간한 것이 시초이며, 1982년 '국문학보'를 복간하는 과정에서 '어문논총'으로 제호가 변경되었다.

국문학회연구회는 2003년 전남대학교 부설연구소로 설립된 한국어문학회연구소로 이어지면서 '어문논총'도 승계됐다.

한국어문학회연구소는 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발간되는 '어문논총'은 국어국문학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국어교육·한국어교육 분야까지 아우르며 전방위적인 학술성과를 거두고 있다. '어문논총'은 2월과 8월 연 2회 발간되고 있다.

김동근 한국어문학회연구소장(국문학과 교수)은 "등재후보지 선정은 계기로 '어문논총'의 학술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동신대 언어치료학과 2020년 박사 과정 첫 신입생 모집

동신대 대학원 19일부터 석·박사 과정 신입생 모집

동신대학교 언어치료학과(학과장 이은경)는 2020년 일반대학원 언어치료전공 박사과정을 개설하고 첫 신입생을 모집한다.

동신대 언어치료학과는 지난 2005년 광주·전남 최초로 학부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5대 장애 영역에 노인성 언어장애, 노인성 청각장애 전공 분야를 특화해 연구 활성화와 특성화된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09년 3월에는 사회개발대학원에 언어치료학과를 만들었으며, 현재까지 60명이 석사 학위 과정을 이수했으며 14명은 학위 과정을 밟고 있다.

한편 동신대 대학원은 오는 19일부터 2020학년도 전기 석·박사 과정 신입생 모집한다. 원서는 다음달 3일 오후 5시까지 대학원 교학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면접과 구술 고사는 12월 11일이며, 합격자는 같은 달 19일 오후 3시 동신대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 도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